

# 거대한 대륙 인도문화 소개 활기 띈다

## 힌두교경전 「마하바라타」 등 본격번역…인도사 연구서도 잇달아 선보여

인도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인도문화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지도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그같은 인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영역은 헤초의 「왕오천축국전」 이래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철학 분야였다. 역사나 문학 등 인도 문화의 피와 살을 살피지 않고도 단박에 인도 문화의 정수에 육박한 셈이다. 「베다」나 「우파니샤드」 등은 혼의 질병을 앓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애송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사가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엔 허전한 구석이 많았다. "인도고전문화의 총화"이자 "고대 인도에 대한 대백과사전"인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의 미번역 때문이었다.

그 두 서사시가 9월말경 불교관련 전문출판사인 민족사에서 출간될 예정이어서 관심있는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거기에 보태어 인도의 수도 델리의 풍물과 정신 그리고 인도 역사의 내면적 진실을 소개로 한 장편소설 「델리」(쿠쉬완트 싱 저, 황보석 역, 문이당)도 최근 출간돼 인도문화의 소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 인도문화 소개 본격화 조짐

주지하다시피, 인류 最古문명의 하나인 인더스문명을 잉태한 민족은 검은 피부에 낮은 코를 가진 드라비다족이었다. 그러다가 BC 1500년경 현 서양인의 선조인 아리안족에게 정복당해 피지배자가 되었다. 아리안족의 문화수준은 "인간성의 자유, 세계의 근원과 천지창조 등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망라한 인류 최초의 문화적 성전"인 「리그 베다」로 상징되며, 그 문화적 우월감의 사회화가 「카스트」제도로 나타난다. 「리그 베다」의 주요 신들 사이에는 상하구별이 없었으므로 베다의 시인들은 최고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사색에 몰입할 수 있었다. "타드 트밤 아시: 네가 바로 그것이다" 등의 범아일여 사상으로 유명한 「우파니샤드」는 그러한 철학적 사고를 정형화한 단적인 실례이다. 그 「우파니샤드 시대」가 성립된 것은 BC6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 시대는 정복자인 아리안족의 시대였다. 점차 혼혈이 성행하여 원주민과의 융화현상을 겪게 되면서 인도 토착의 신화와 몸을 섞게 된다. 「바가바드 기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우파니샤드」 「브라마수트라」와 더불어 인도사상의 '3대경전'의 하

인도는 나라가 아닌 대륙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영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철학에 국한됐었다.

80년대 들어서야 제3세계라는

동병상련의 연대감에 의해 근대사 및

리얼리즘 문학작품이 소개됐다.

다소 「장님 코끼리 만지기」였지만,

올해들어 「마하바라타」 「라마야나」의

번역 등을 계기로 인도문화에 대한

소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로서, 일찍이 서구에 소개된 이래 "모든 문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니 아마도 유일하며 진정한 哲學詩" 혹은 "이것을 모르고 인도를 말하는 것은 「바이블」을 모르고 서양을 논하는 것과 같다"는 찬사를 받는 인도고대의 '시집'이다. "개달은 사람은 개나, 개를 먹는 자까지도 평등한 눈으로 보느니라" 등 읽는이의 직관을 고양케 하고 감정을 전율시키는 구절들로 점철돼 있다.

이같은 「바가바드 기타」는 그러나 독립된 '철학시집'이 아니라 근자에 출간된 「마하바라타」의 한 장에 불과한 것이다. 인도인들은 "세상 모든 것이 「마하바라타」에 있나니,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마하바라타」 안에 「바가바드 기타」가 없을 리가 없는 것이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는 성서와 코란에 필적하는 힌두교의 경전으로서 "20km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복잡한 인도대륙을 하나로 이어주는 장편서사시이다. 이 서사시들은, 「세계문학사」(림희 의 저, 도서출판 세계)에 의하면, 「일리아드」 「오딧세이」와 마찬가지로 "원시씨족공동체사회가 점차 와해되고 노예제 사회로 전변하는 사회변동기에 일어난 복잡한 사회현상을 서사시적 거대한 예술형식으로 개괄"한 것으로 "인도문학의 전범"이다.

「마하바라타」는 20만행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서사시로서 「성경」의 세배, 「일리아드」 「오딧세이」를 합친 것의 약 8배의 부피이다. 「바라타족」 사이에 일어난 18일간의 전쟁기록이지만, 고대인도의 일대 백과사전이라 할만큼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어 진주부터 '인도학의 보고'로 손꼽히는 작품집이었다. 「라마



인도 내륙지방 카주라호에 있는 한 힌두사원의 벽면. 교점 체위의 만다라를 보여주고 있다.

야나」는 「라마의 일생」 「라마의 방랑」이라는 뜻을 지닌 서사시로서, 「마하바라타」처럼 몇 천년 구송되다가 BC 1000년 전후에 현전하는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기본 줄거리는 「마하바라타」와 마찬가지로 "씨족귀족내부의 왕위 쟁탈전"이지만, 왕위 쟁탈전에서 실패한 라마의 방랑생활과 모험적인 이야기를 다루므로 "인도의 「오딧세이」"라고 회자된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위의 두 서사시의 저본은 산스크리트어본이 아니라 인도인이 쓴 영어발췌본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역사 주해신씨는 후기에서 각각 「마하바라타」다운 「마하바라타」가 빨리 소개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양상한 줄거리만을 겨우 전하게 된" 부끄러움을 적어놓는다.

### 철학·종교에서 역사·문학분야까지 다양해져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로 대표되는 영웅 서사시대의 전성기가 구가될 즈음, 알렉산더의 침입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에서는 "국민의 자각" "간다라예술로 표상되는 동서문화의 교류" "사상의 교류"가 촉진되었다 (「인도사」, 정병조 저, 대한교과서). 한 佛典에서는 당시 석가모니를 위시한 '자유사상가'의 백가쟁명시대의 학설을 "60見"으로 부를 만큼 다기다종의 철학체계가 형성·전개됐다.

힌두전통의 변용이 초래된 것은 1206년 델리에 몽고족의 이슬람왕조가 성립되면서부터였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이슬람과 힌두 양문화의 혼화·융합의 풍조가 현저해졌다(「인도사상의 역사」, 정호영 역, 민족사). 그 이후의 복잡다단한 인도의 사상과 문화, 풍속, 종족, 종교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델리」

이다. 「델리」는 장을 바꿔가며 무굴제국의 흥망성쇠, 세포이반란, 뉴델리건설, 1984년 인디라 간디 암살사건에 이르는 6백여 년의 델리 역사를 황제, 시민, 성자, 환관, 요부 등의 사건당사자들의 눈을 통해 드러낸다.

특히 지난 81년 한길사의 「아시아·아프리카 소설선」에 수록된 쿠쉬완트싱의 「파키스탄 행 열차」(박태순 역)를 통해서도 영국의 오랜 식민지하에서 독립한 인도가 종교분쟁으로 파키스탄과 분단이 되는 와중에서 처참한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었던 인도 현대사를 살필 수 있다. 85년에 창작과비평사에서 '제3세계 중·단편 시리즈'를 기획하며 출간한 「나의 전장」(김우조 역)과 지학사에서 87년에 펴낸 「암흑」(비스프 사하니 저, 이정호 역) 역시 인도의 근현대사를 감동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다.

한편 인도사 연구서로서는 「인도근대사」(피시벌 스피어 저, 이옥순 역, 신구문화사), 「인도의 전통과 변화」(반고지 편, 현음사), 「인도독립투쟁」(나이르 저, 김세중 역, 일월서각), 「인도민족주의운동사」(조길태 저, 신서원), 「인도에 대한 영국제국주의정책의 한 연구」(김진식 저, 지식산업사) 등이 있다.

온갖 문화에 대한 관용성, 그래서 "잡종문화"라 특징지워진 인도문화의 사유체계와 생생한 모습을 우리의 책속에서 찾는 일은 아직은 생소하다. 한국외국어대 인도어과 김우조 교수는 그러나 "인도학 연구자들이 밤샘이 할 곳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인도문화의 본격적인 소개와 연구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낙관론을 개진한다.

—김중식 기자